불이 어디서 왔는가?
〈火〉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⑯ 실체

〈원문〉 "아난아, 불의 성품이 실체가 없어서 여러 인연에 의탁하나니 네가 성안에 밥을 먹지 않은 집을 보아라. 밥을 지으려 할 때 손에 유리 렌즈(陽燧=火鏡)를 잡고 해에서 불을 구하나니 이것을 화합이라 한다면 아난아, 나와 너, 그리고 1250명의 비구들이 지금 한 대중을 이루었으니 대중은 비록 하나나 그 근본을 따지면 제각기 몸이 있느니라. 사리불은 바라문족이요, 우루빈나는 가섭파종이요, 아난은 구담종성이니라.

만약에 불의 성질이 화합하여 생긴 것이라면 사람이 손에 화경을 들고 해에서 불을 구할 적에 이 불이 화경에서 나오느냐, 쑥(艾)에서 나오느냐, 해에서 나오느냐? 만약 해에서 나온다면 능히 네 손의 쑥을 태우니 햇빛이 닿는 숲의 나무들도 태워져야 할 것이며, 화경에서 나온다면 스스로 능히 화경에서 나와 쑥을 태우거늘 화경은 어째서 녹지 않느냐? 쑥에서 나온다면 어째서 해와 화경을 통해 나오는가? 화경은 손에 들렸고 해는 하늘에 있고 쑥은 땅에서 났으니 불이 어디에서 왔는가? 해와 화경은 멀리 떨어져 화합이 아니며, 그렇다고 타는 불이 저절로 있는 것도 아니니라. 세상 사람이 한곳에서 화경을 잡으면 한 곳에서 불이 생기고 여러 곳에서 하면 여러 곳에서 불이 생기나니 어찌 정해진 장소가 있겠느냐?"

〈강해〉 성냥이나 화약 등이 발명되기 전에 불을 구하는 원시적인 방법이 있었다. 유리로 된 돋보기 렌즈를 손에 들고 햇빛을 받아 초점을 맞추어 마른 쑥을 갖다 대면 불꽃이 일어나 쑥이 타는 것이다. 또 부싯돌을 이용하여 옛날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일도 있었다.

밥을 짓기 위하여 아궁이 불을 땔 때 양수(陽燧=火鏡)를 들고 불을 구하는 예를 들어 불의 출처를 따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다. 햇빛, 화경, 쑥, 세 가지를 이용하여 불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이 어디서 왔는지 단적인 출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곧잘 인연 소치라고 설명하지만 그 인연도 공한 것이라는 것이다. 〈중론(中論)〉에 나오는 사구송(四句頌)에 "인연에 의해 생기는 법을 나는 공한 것이며 또한 거짓 이름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중도의 뜻이라 말한다(因緣所生法 我說卽是空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고 하였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일어났지만, 어느 것도 실체가 없어 모두가 공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공관(空觀)인데, 이는 연기된 현상을 분석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이를 달리 석공(析空)이라 말하기도 한다. 실제 수행에서 공관을 터득하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고비라고 말한다. 역설적인 말로 공을 모르면 불교를 모른다는 말도 있다. 삼법인(三法印)에서 말한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무아(無我)라는 개념이 연기의 실체가 없음을 뜻하다가 나중에 공(空)이라는 말로 대체되어 설해지게 되었다. 대승불교의 비조(鼻祖)로 알려진 용수(龍樹)는 공에서 팔불(八不)을 세워 중도(中道)를 천명하기도 했다. 사자사구(四字四句)로 불생불멸(不生不滅), 부단불상(不斷不常), 불일불이(不一不異), 불거불래(不去不來)로 표현된 말이 모두 상대적인 양변(兩邊)을 동시에 부정하여 중관(中觀)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바로 중도제일의제(中道第一義諦)라는 것이다. 용수의 중관사상이 담긴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그리고 제자 제바(提婆)의 백론(百論)을 삼론(三論)이라 하여 이삼론을 중국으로 들어간 고구려의 승랑(僧朗)과 중국의 길장(吉藏) 등이 깊이 연구하여 삼론종(三論宗)이란 종파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밥을 짓기 위하여 불을 지피지만 이 불이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의 성품(火性)이 시방에 충만해 있다. 세상 사람이 한 곳에서 손에 화경을 잡고 불을 구하면 한 곳에서 불이 나오고 여러 곳에서 하면 여러 곳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다. 불의 성품만 그럴 뿐 아니라 물의 성품도 마찬가지다. 법성(法性)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중생의 업을 따라 발현하는 것이다. 〈능엄경〉에서 말하는 여래장묘진여성은 심심미묘하고 불가사의한 것이다. 경문에서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性)이라고 하면서 희론(戱論)이나 외변사(外邊事)에 떨어지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반신 소주천'하면서 갈비·꼬리뼈 순화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⑯ 반신 소주천(半身小周天)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깨어난 선천원기를 척추뼈를 따라서 오르내린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척추뼈 순화이다. 다음 단계로 갈비뼈 순화를 행한다.

갈비뼈 순화는 '옴' 자 발성법과 진동관법이 함께 쓰인다. 숨을 들이쉴 때는 진동관법을 활용하고 내쉴 때는 '옴' 자 발성법을 활용한다. 들숨에 노궁의 기운을 명문까지 끌어들인다. 날숨에 중심을 울려서 "옴~~~"하고 발성한다. '옴' 자 발성을 하면서 발성의 진동이 몸 밖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면서 중심과 영대, 하단전과 명문이 함께 울리는 것을 주시한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피부를 통해 접해지는 기운의 감각을 척추의 중심으로 빨아들인다. 그러면서 그 기운을 명문까지 끌어내린다. 이때 노궁에서 들어오는 기운과 이 기운이 하나로 합쳐진다. 숨을 내쉬면서 "옴~~~"하고 발성한다. 그러면서 명문과 하단전, 중심과 영대의 울림을 함께 주시한다. 중심과 영대, 명문과 하단전을 연결해서 선천원기를 운용하는 것을 '반신 소주천(半身小周天)' 이라고 한다. 반신 소주천을 하면서 갈비뼈 순화와 꼬리뼈 순화가 함께 이루어진다. 반신 소주천법(半身小周天法) 옴자 발성의 진동을 이용해서 반신 소주천의 통로를 연결한다. 먼저 중심과 하단전을 연결하고 하단전과 명문, 중심과 영대, 명문과 영대를 순서대로 연결한다. 네 개의 경로를 연결하면 '반신 소주천의 경로'가 확보된 것이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확보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몸 전체의 감각을 열어놓는다. 들숨에 기운을 척추로 흡수한 다음 명문에 저장한다. 날숨에 '옴' 자 발성으로 중심을 울려준다. 발성의 진동이 명문을 울리는 것을 인식하면서 중심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 다. 중심과 명문 간에 공명이 일어나면 중심과 명문 사이에 대각선 통로가 형성된다. 그러면서 명문의 진동이 꼬리뼈까지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증을 경험한다. 명문의 기운이 농구공만큼 커질 정도가 되면, 명문에서 꼬리뼈까지 전체 부위에서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 이것은 미추 부위에 쌓여있던 탁기가 빠져가면서 생기는 증상이다.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골반뼈가 출산할 때처럼 벌어졌다 수축되는 증상도 생긴다. 그렇게 되면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증상이 2주 정도 지속된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한 마음으로 이 과정을 넘어가야 한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확보하는 두 번째 과정이다. 가슴바탕의 고요함을 하단전으로 확장시켜서 중심, 하단전 경로를 여는 방법이다. 들숨에 노궁의 기운과 촉감으로 인식되는 기운을 명문으로 집약시킨다. 날숨에 '옴' 자 발성으로 하단전을 울려준다. 중심의 진동이 하단전까지 퍼져나가게 하면서 하단전을 주시한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수련한다. 가슴바탕의 고요함이 하단전까지 확장되면 고요함이 더 깊어진다. 그러면서 가슴과 하단전 사이에 텅 빈 항아리가 생겨난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확보하는 세 번째 과정이다. 하단전과 명문의 통로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들숨에 명문으로 기운을 집약시킨다. 날숨에 '옴' 자 발성으로 하단전을 울려준다. 이때 하단전의 진동을 명문까지 퍼져나가게 하면서 하단전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하단전과 명문이 공명하면서 기운의 통로가 형성된다. 그러면서 들숨 때 명문의 기운이 하단전 쪽으로 빨려 들어오고, 날숨 때 밀려나가는 현상이 되풀이 된다. 통로가 대롱처럼 인식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공 같은 것이 왕복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기운 덩어리가 펌프질하듯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확보하는 네 번째 과정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⑯ 선지식 만나야 과보 벗어

오온이 투덜댈 때 놓치지 말라

모양을 가진 태어남은 모양에 따라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만, 모양을 벗어난 봄은 어떠한 상태의 세상이 없다. 그리고 사실과 사실 아님이 너무나 명확하여 속는 일도 없다. 그러나 모양을 가진 태어남은 명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무엇에 속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 사실이라 하게 되고, 사실을 보고도 사실이 아닌 줄 알게 된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우리는 아주 쉽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사실을 사실로 알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면 되는 문제 같지만, 언어가 주는 이해와 실재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다. 그렇기에 오온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상반된 입장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반대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반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개념을 통째로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을 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를 생각할 것이다. 이 문장은 앎을 가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지나쳐 버린다. 스스로는 그때가 가장 안타까운 심정이다.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인데, 그 말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다시 무엇을 하는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스스로는 오온이 투덜대는 소리를 정확하게 한 번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 없이 그를 괴롭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아마 대부분은 여기에서 상처 입고 오온에게 굴복되어 세상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오온이 제시하는 개념을 믿고, 수행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진리를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신에게 의지하고, 아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것이라 자부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고 그 노력의 결과가 존재하는 것인가를 묻는다면, 스스로는 그것은 허상이라 말할 것이다. 그리고 허상은 느껴지고, 지각되고, 인식되고, 의식되는 것이고, 진리는 느껴지지 않고, 지각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의식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들 다섯 무간의 죄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진정한 선지식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 하네. 그래야만 비로소 끊임없이 망상이 이어지는 무간지옥의 괴로운 과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네."

스스로는 누구에게도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없다. 항상 모호한 것으로 그들의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스스로의 임무이다. 그러니 듣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기를 계속 기대하면서 듣게 되겠지만, 아마 이 말이 끝날 때까지 그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만약 세상에서 명확함을 들으려는 마음이 미혹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이제 무수한 세상에서 장애 없는 '있음' 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말 자체도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배우는 것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는 신념을 가져버린 탓에, 정작 배우는 자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핵심을 놓쳐버린다.

우리의 인식은 의식에 저장되어있는 정보일 뿐이다. 그 정보는 사람마다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지면서 세상을 저장한다. 그러니 의식에 저장되어있는 정보가 세상을 바르게 본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정보는 무작위로 저장되고, 의도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라고 하는 오온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끄집어내어진다. 저장된 정보는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때 이익 혹은 손해라는 허상이 '나' 가 되는 것이지, 실체를 가진 '나' 라는 것은 없다. 만약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일어난 이익과 손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7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계묘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